

IBK기업은행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지원 앞장

IBK기업은행이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방식의 수출입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는 많은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을 원하지만, 인력, 자금, 경험 등이 부족해 자체적으로 판로를 개척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착안했다.

기업은행은 해외 판로 개척을 원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산탄 데르은행 등 13개 해외 은행과 제휴해 스페인, 영국, 폴란드, 칠레, 태국, 말레이시아 등 해외 수입기업과 국내 중소기업을 온·오프라인으로 매칭해주는 'IBK 트레이드클럽'(Trade Club)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국내 금융권 최초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수출입 매칭 서비스다. '매칭 알고리즘'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 판로를 찾는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을 자동 연결해주거나 전담 관리자가 희망 사업과 규모 등을 살펴 거래 대상을 연결한다.

서비스 가입 기업은 제휴 은행이 제공한 전 세계 49개국 1만5천개 기업고객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IBK 트레이드클럽에는 지난 4월 말 기준 855개 업체가 가입했고, 온라인 수출입 매칭 추천은 2천400회, 시스템 내 기업 간 메시지 교환은 600회 정도 이뤄지는 등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제휴 은행 간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출입 우량기업을 오프라인으로 매칭하고, 트레이드클럽 내에서 기업 간 온라인 상담으로 연결해 매칭 기업 간 거래가 지속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 4월 3일부터 나흘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국제 할랄제품 전시회'(MIHAS 2019)에서 트레이드클럽에 가입한 말레이시아 상업은행(CIMB)과 협력해 다양한 형태의 수출입 매칭 기회를 제공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특히 CIMB은행의 우량 고객인 할랄 수입기업(현지 기업)과 한국 수출기업이 일대일로 만날 기회를 주선했다. 또 CIMB은행이 독점 제공하던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한국 기업



만을 대상으로 세계 각국의 수입기업과 '스피드매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에서 수출계약이 바로 체결되고 상담 40여 건이 이뤄지는 등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수출입 매칭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매칭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는 "매번 전시회에 참가했는데 은행에서 이런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와 서비스가 제공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은행은 지난 5월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150개 중소기업을 선정해 온라인 수출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6개월간 무료로 운영하며 해외 온라인 마켓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

To. 공인인증서·보안카드·휴대폰인증·신규비밀번호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



6자리 비밀번호 안 되는 게 없는 모바일뱅크 i-ONE Bank

- 안정하고 편리한 간편로그인
- 흔들어 보내는 특특송금
- AI 금융비서 챗봇
- 내 맘대로 모으는 D-day적금

